

도내 건설인허가 꾸준히 활발 전년比 33.4% 증가 '5,279호'

하향세를 보이는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과 달리 도내 주택 공급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.
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6월 도내 건설 인허가 실적은 5,279호로 지난해 같은 시기 3,957호보다 33.4% 증가했다. 전국 인허가 실적은 5만9,608호로 지난해보다 25.4% 떨어진 것과 대조적인 활황이다.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누적 인허가 실적은 1만4,567호를 기록, 지난해 1만1,892호보다 22.5% 올랐다. 지난해 520호였던 도내 주택 준공 실적 역시 올해 579호로 집계, 11.3% 늘었다. 도내 부동산 업계는 개최를 앞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고속철도, 고속도로 등 각종 교통망 확충을 상승세의 원인으로 풀이했다.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공급되는 주택물량이 올림픽 폐막과 함께 미분양 상태로 남겨지는 등 역효과 발생을 우려했다.

윤종현기자